

## 순백으로 갈아입은 대청봉 태고적 양양비경 휘감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순백으로 갈아입은 대청봉  
태고적 양양비경 휘감다

곱게 물들었던 오색단풍 뒤로하고  
어느새 대청봉 정상에 순백의 옷  
갈아입은 신비로움이 자리했다.

태고적 신비 고스란히 간직한  
대청봉 정상에는 양양만이 지닌  
인내와 슬기가 의연하게 전해지고 있다.

모진풍파 맞으며 곳곳하게 버티 온  
그 질곡의 세월에도 양양은 온전하게  
새로운 희망을 쉼내려가고 있다.

지 면 안 내

- 2면 양양국제공항서 중국 23개 도시 연결
- 5면 수도권에 '양양학사' 설립 추진
- 8면 농·특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 11면 내년도 공공비축미 오륜·오광벼 선정

- 3면 주요 사업장 8곳 현장점검 실시
- 6면 내년도 당초예산 2,146억 편성
- 9면 양양사이클경기장 올해 6개 대회 유치
- 12면 생활정보

- 4면 우리군 국도변 특색 있는 녹지대로
- 7면 강현농협 영동권 최초 육묘은행 조성
- 10면 현북면 질골 연화두부 브랜드 자리매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문공항 양양국제공항이 뜬다

# 양양국제공항서 중국 23개 도시 연결

## 강원도·우리군·진에어·중국 금학항공 지난 13일 협약 체결

### 12월1일 본격 운항...내년 4월1일 제주노선 개설



최문순 지사와 정상철 양양군수가 진에어와 중국 금학항공 관계자들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양양국제공항이 중국 23개 도시와 본격적인 전세기 운항에 들어가 실질적인 공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3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지사와 정상철 군수, 마원 진에어 대표, 중국 금학항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중국 23개 도시 운항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일 중국 창사와 푸저우, 닝보 등 3개 노선의 전세기 운항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총 2,600여

편의 전세기가 운항될 계획이다.

진에어는 우선 내년 2월28일까지 189석의 항공기로 중국 3개 노선에 주 16편을 운항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동북지역의 하얼빈·다롄·장춘 등을 비롯해 화남·북, 서남·북 등 19개 도시를 전세기로 연결한다.

또 이번에 강원도와 협약을 맺은 중국 금학항공도 추후 4개 도시와의 전세기 운항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양양국제공항은 역대 가장 많은 23개 중국 도시와의 항공 교류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72시간 무사증입국을 위해 내년 4월1일부터 제주노선을 개설해 제주~양양~중국~양양~제주를 왕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노선을 1일 4회 8편 운항할 계획이어서, 관광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노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연간 40여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설악산과 낙산사, 통일전망대 등 설악권의 주요 관광지와 남이섬을 비롯한 춘천권 등 도내 관광지에서 최소 4박5일 머물 수 있도록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군도 이에 발맞춰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지경리 복합휴양단지 조성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한국공항공사도 편의시설 확충 등 중국인 관광객 맞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지방국제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전세기 노선을 확보함에 따라 경쟁력이 입증된 노선을 골라 정기노선으로 전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양국제공항이 이처럼 유력 저가항공사를 매개로 중국 23개 도시와 하늘길을 새롭게 열면서 공항활성화는 물론 설악권 관광산업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문순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양국제공항은 그야말로 개항 목표였던 동북아 허브공항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됐다"며 "공항활성화를 계기로 관광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면밀한 운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상철 군수는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라는 약속이 이제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단순한 국제노선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군의 관광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근 중국정부의 여행법 개정에 따라 중국인들의 입국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아웃바운드' 균형 맞추기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 민선5기 공약·현안사업 '양호'

## 우리군 추진상황 보고회...49개 사업 면밀 점검

### 양양국제공항·민자유치 성과 '뚜렷'

민선5기 우리군정의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이 오색사도 등 일부 굵직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군은 지난 19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정상철 군수와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공약·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22개 공약과 27개 현안사업 등 총 49개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성과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근 도약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가 가장 뚜렷한 성과를 꼽힌 가운데 국제선 첫 정기노선 개설과 중국 23개 노선과의 연결에 이은 실질적인 관광활성화 후속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주민들의 숙원인 양양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착공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양소방서 신축사업도 연내 착공해 내년 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이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재선거에서 지역발전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5+2day 미래도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미래전략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지역 5개 관광거점지구와 2개 전략지구를 결합한 새로운 틀의 관광활성화 비전으로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진했던 민자유치사업도 현남면 지경리 대규모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가시화로 활성화 기미를 보이기 시작해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원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장현대화 연계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며 이어 주말장터와 시장투어, 콘텐츠 접목 등으로 다양화에 나서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군은 또 양양송이·연어축제와 해맞이축제, 현산문화제 등 양양군 4대 축제를 관

광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후속사업에 공을 들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인재육성장학사업이 올해 발족과 함께 30억원의 기금 조성에 성공하면서 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내에서 군 지역에 처음 개설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시니어클럽도 일자리 창출에 보탬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철 군수는 "공약사업과 현안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때 군정발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양양소방서 신축 본격화

## 내년 9월 중 건축공사 발주 2015년 완공 예정

양양소방서 신축사업이 이달부터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우리군은 지난 9월 소방서 신축부지의 잔여토지 매입을 완료함에 따라 이달부터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양소방서는 양양읍 율리 329번지 일원 8,403㎡에 오는 2015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 규모의 소방서와 부대 시설 등이 신축될 계획이다.

양양소방서 신축사업은 용역비 1억3,500만원, 토지매입비 5억5,800만원, 부지조성비 9억7,900만원과 건축비 50억원 등 총 67억 2,800만원이 소요되며, 이달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내년 8월까지 부지조성 및 도유지 교환을 완료한 뒤, 9월 중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에 5번이나 지정된 우리군은 행정구역이 넓고 산림지대(80%)가 많은데다 연간 8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어 점차 소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방서 신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양양소방서가 신축되면 최소 40명에서 최대 60명의 인원이 배정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의 산불예방 및 신속한 화재진압 출동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의 안전행정과 안전총괄담당 670-2749



# 의 정 소 식

## 주요 사업장 8곳 현장점검 실시

제194회 임시회 열어...행정사무감사 12월19일까지

우리군의회는 김일수 의장 주재로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 제19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해 추진된 이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중에서 주민복지와의 상당성, 장기 미결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지역 민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상공원 정비사업 등 총 8개의 대상지를 선정해 11월 7일 제194회 군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7일과 11월 8일 양일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송이밸리 자연휴양

림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현장점검 시 주변 환경미화를 위해 유휴 공간에 영산홍, 꽃잔디, 패랭이 등 꽃나무를 다량으로 식재하고 꽃 군락지를 조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 한 바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재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상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6월에 완료되었으나 아직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다고 판단돼 안내간판 설치 및 공연장을 이용한 각종 공연 개최로 상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가와 다소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물고 한산해 야간의 경우,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간 조명등의 조도를 높이고 CCTV 설치 및 경찰서와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받아 순찰을 강화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재판이 여러해 동안 진행되고 있는 장기 미결사업인 낙산월드 및 해마랜드는 소송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마랜드의 경우 철거 소송 승소 후에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철거해 침체된 낙산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차후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김일수 의장은 해마랜드 현장점검 시 프레야 낙산콘도 등 대형숙박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히 프레야 낙산콘도와 낙산비치호텔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집행부에 적극 당부했다.

우리군의회는 25일부터 제195회 정례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한 뒤 오는 12월 19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8일부터 12월19일까지 진행된다.

▶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 주민심사평가단 현장점검

지난 20~21일 종합운동장 등 8개 사업장 실시

우리군은 지난 20~21일까지 이틀간 2013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주민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이날 6개 읍면별로 10명씩 총 60명의 주민대표와 주요업무평가위원 7명 등 총 67명의 주민심사평가단을 구성해 주요사업장을 찾아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주민심사평가단은 이틀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범부교 재가설 공사,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 하조대전망대 설치사업, 남해항전망대 설치사업, 쌍천 생태하천정비사업 등 8개 사업장을 돌며 사업장별 시설현황 및 추진상황, 공사일정 등을 짚어봤다.

군은 현장시찰 후 평가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최대한 군정에 반영해 주민심사

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장중심의 위민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실사에 참여한 주민심사평가단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앞으로 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 등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후속계획도 면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평가해 행정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군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전보다 내실 있는 주민심사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심사 평가를 통해 군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강화된 점검으로 부실공사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우리군 레저스포츠 도시조성 박차

해양레저 거점 조성·스포츠인프라 연계

우리군이 최근 뜨고 있는 해양레저와 스포츠마케팅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통해 레저스포츠 도시 조성에 나선다.

군은 그동안 조성된 양양사이클경기장과 탐방로, 해안전망대, 자전거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스킨스쿠버와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 거점시설을 구축, 중점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사이클경기장과 함께 현재 조성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및 향후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다목적 체육관(연면적 2,000㎡ 규모)을 건립해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365일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읍면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인조축구장, 실내체육관, 풋살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한편, 각종 대회출전과 지도자 육성 및 엘리트 꿈나무 육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조성중인 현남면 동산항을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따라 레저전용 접안시설과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시설을 도입, 해양레저의 거점항으로 육성할 계

획인 가운데 현북면 기사문항~38후계소 구간을 윈드서핑과 제트보트장으로, 수산항을 국내 최고의 요트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산항의 요트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상품 개발 및 요트 연수원을 설치하고 푼트시설도 현재 60선식에서 100선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자전거길 및 자전거 공원과 관동팔경길, 동해안 탐방로, 38선 숲길, 남대천 수변 트레킹 길 등 테마형 녹색체험 콘텐츠를 연계, 체험과 관광을 하나로 묶는 관광활성화 인프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각종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향후 계획된 추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실질적인 관광부야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상철 군수는 "양양이 가진 최고의 가치가 녹색의 청정한 자원인 만큼 앞으로 레저와 스포츠가 조화를 이뤄 우리군만의 특화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현안사업 기획예산 로드맵 추진

우리군, 연말까지 7대 과제 21개 전략사업 완성

우리군이 각종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로드맵을 작성해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나,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해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인재육성 등 7대 과제와 21개 추진전략, 108개 단위사업을 선정해 초안을 작성하고, 의견수렴과 주민 토론회를 거쳐 인터넷 및 책자발간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

표하고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업무성격별로 핵심과제를 분류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행태를 탈피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정부정책에 대응한 분야별 접근전략과 목표 설정해 예산확보와 병행한 기획예산체제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달 초까지 초안을 작성해 정책개발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내용을 보완한 후 의회보고 및 설문조사, 주민의견 수

렴을 실시한 후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내년부터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민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기획예산체제 운영을 통해 예측과 실현 가능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현안사업도 속도를 내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우리군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추진

33개 누·정·대(樓·亭·臺) 체험관광 콘텐츠로

우리군이 주요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시대를 맞아 지역에 산재한 각종 문화유적을 정비해 문화콘텐츠로 발굴하는 특색 있는 문화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한시 및 고서 등을 통해 전해지는 누·정·대(樓·亭·臺)중 대표적인 곳부터 우선 복원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육성, 향후 다양한 지역문화유산 발굴육성과 전승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풍경이 아름답고 이야기가 있는 곳을 선정해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체험 기회제공과 방문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누정과 관련한 시, 역사문헌, 서화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현재 양양군의 대표적인 누정으로는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하조대의 지명이 있게 한 인물로 알려진 조준이 시 한수를 지어 걸었다는 태령루와 고려말 안축이 지은 관동별곡에 소개되고 있는 강선정과 상운정, 낙산사 내에 위치해 의상대와 더불어 빼어난 동해안의 경치를 자랑하는 이화정, 동산해변과 죽도해변 사이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관란정 등 다수가 산재해 있다.

특히 관란정은 동국여지승람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뒤로는 태백산맥을, 앞으로는 죽도를 관망할 수 있어 고려 때 학자인 이곡, 안축, 강희백 등 당대의 대문호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읊었던 기록 등이 남아 있어 관광자원화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양양8경에 포함돼 있는 하조대도 대부분 누각이 아니라 등대와 애국송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 정확한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고증을 거쳐 누정자료 수집 및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복원을 위한 국비확보를 통해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누정을 새로운 문화관광체험 루트와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양양관내에는 누각 8개소와 정자 23개소, 대 2개소 등 총 33개소의 누정대 자원이 산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재한 문화유적이 신개념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를 발굴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전국 지자체 정보교환·교류의 장 마련

한국지역진흥재단 7~8일 양양서 워크숍 가져...송천떡마을 견학

한국지역진흥재단(이사장 한봉기)이 설악권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7~8일 이틀간 양양 강현면 코레일 낙산연수원에서 2013년 전국 지역진흥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고성출신인 한봉기(전 강원도 행정부지사) 위원장을 비롯해 정상철 군수, 안전행정부 공무원, 전국 지자체 홍보·마케팅·관광·축제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 지역진흥 시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관광1번지인 설악권의 각 지자체도 참가해 지역특산물과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했다.

1일차인 7일에는 로컬푸드와 농촌관광활력화에 대한 우수 지자체 사례발표, 지역발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튿날에는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활용, 브랜드마케팅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마지막날인 8일에는 2012년 제1회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서면 송천리 떡마을을 찾아 체험을 실시했다.

우리군은 지난 9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지역의 곳곳을 알리는 한국의 재발견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중파를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문의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670-2102



## 우리군 국도변 특색 있는 녹지대로

구룡령로 등 4개 구간 경관조성 기본계획 수립

우리군은 관내 주요 국도변을 특색 있는 녹지대로 가꾸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군은 지난 14일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국도변 경관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회를 갖고 사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동해대로(7번국도) 1구간, 남대천로(59번지방도) 2구간, 설악로(44번국도) 3구간, 구룡령로(56번국도) 등 4개구간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구간별로 경관을 분석, 계획을 수립했다.

동해대로 7번국도변은 경관통합요소로서 가로수를 특성화하고 변화요소로서 관목 및 인공요소를 도입, 바다와 호수 등의 경관을 부각시켜 지역특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남대천로 59번 지방도는 주변의 좋은 경관을 부각시키고 주요 구간의 가드레일을 투시형으로

교체, 일부 시각차단요소를 제거해해 경관가로를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또 설악로인 44번국도는 단풍이 아름다운 가로로 현재의 특성을 강화해 산사나무 가로수를 식재, 오색이 있는 가로로 특성화한 뒤 국도변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 자연과의 조화를 높이고, 56번국도인 구룡령로는 현재의 특성을 강화하고 개인소요 상업시설의 전면부를 활용, 관목으로 개성을 살리고 호수 경관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했다. 총 사업비(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는 142억원으로 산출됐다.

군 관계자는 “보고회 결과를 초대로 아름다운 가로수와 꽃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특색 있는 양양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농지과 산림녹지담당 670-2710

## 제17회 노인의 날 경로효친 고취

우리군, 축하자리 마련·장수지팡이 증정

제17회 우리군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가 지난 10월28일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려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식전·식후 경축행사에서는 들꽃무용단의 한국무용(부채춤), 세계에어보틱스의 에어로빅, 주청리 경로당의 건강 체조, 이솝어린이집의 어린이운동 등 다양한 행사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서면 김만재 씨와 양양읍 황용완 씨, (사)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가 강원도지상을 수상했으며, 양양읍 감곡리 노인회장 이

기흥 씨 등 6명이 군수표창을 받았다.

또 100세 이상 장수노인인 양양읍 박길병 씨(100세)와 강현면 이춘남 씨(100세)에게는 장수지팡이(청려장)가 선물로 증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발굴 포상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화합과 격려를 위한 경로위안 행사로 정상철 군수를 비롯한 도·군 의원, 읍면 어르신들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우리군 경관주택지원사업 추진

올해도 5동 선정 500만원씩 지원

우리군이 올해도 경관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11월말 사이에 완공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이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건축되는 주택,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가구주가 자격으로 신청하는 200㎡미만의 단독주택 중 농어촌 경관과 어울리고 자연친화적으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경관주택지원사업은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경관주택 인증신청서

와 설계도면 및 건축현황 사진 등을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된 경관주택에 대해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지안의 공지·공간 확보,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건축물의 형태, 자연친화적 마감재 사용 여부,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의한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담장 등을 종합평가한 후 경관인증 주택 5동을 선정해 각 5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경관주택지원사업을 통해 경관주택 건축사태가 매년 증가해 농어촌의 경관이 개선되고 정주여건도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670-2165

인재육성

# 수도권에 '양양학사' 설립 추진

## 우리군, 총체적 교육여건 개선사업 주력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 총체적인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억원을 투입, 중고등학생 105명을 선발해 3개 과목에 대한 방과 후 수업과 진학 컨설팅을 지원해 개인별 학력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도로 학력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족된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1단계로 2020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5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있는 가운데 출향인 및 군민 1구와 갖기 운동과 유관기관, 기업체 장학금 기탁 협약체결을 통해 목표를 조기 달성해 2030년까지는 2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세부 전략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기금 조성을 통해 앞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관내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2개교 700여명)에 대해서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이 큰 수도권지역에서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양학사'를 양양군과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으로 설립, 장기적으로 60여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완공된 청소년수련관(양양읍 서문리, 지하 1층·지상 4층, 2,694㎡)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지성과 감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잠재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청소년수련관의 실질적인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읍면 소재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연차적으로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인재육성지원사업이 계기로 양양군의 교육여건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안전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 우리군 읍면사무소 당직제 개선

## 평일 당직 오후 9시→오후 7시까지로

우리군이 읍면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평일 당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평일 당직근무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것을 오후 7시까지로 줄이는 대신 무인경비시스템과 전화 착신전환 설정 후 재택당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시간 당직수당으로 지급되던 3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당직비와 전기요금, 연료비 등 연간 4,464만원의 예산절감과 여직원들의 불안감 해소 및 여가선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008년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돼 야간 청사방호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데다, 오후 9시까지 당직근무 중 대부분의 민원이 단순한 전화안내

에 그쳐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읍면 여직원들의 비율이 평균 35.9%에 달해 야간 당직 시 범죄노출 우려가 높아 이번에 읍면 당직체제를 개선,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 여가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됐다.

군은 평일 당직근무는 개선하는 대신 토요일과 기타 법정 공휴일 일직은 기존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하는 한편, 산발 및 기타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덕복 안전행정과장은 "이번 당직 개편으로 읍면사무소도 효율적인 업무체제가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안전행정과 서무담당 670-2130

# 양양해뜨미 전국 쌀 품평회 '금상'수상

강현면 방축리 김창휘 씨 운광벼로 고품질 100여 가마 생산 강현농협 도정공장서 완전미 도정...2만5천평 짓는 모범전업농

'양양해뜨미'가 올해 전국 쌀 대축제 품평회에서 금상인 농림식품축산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고품질 쌀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그 주인공인 강현면 방축리 안골에서 30년간 전업농으로 농촌을 지키고 있는 김창휘(61) 씨.

김 씨는 지난 12~14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쌀 대축제 품평회에 자신이 올해 지은 쌀과 벼를 출품해 영광의 금상을 안았다.

2만5천여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최근 오대벼의 대체품

종으로 운광벼를 선택,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의 지도를 받아 가며 우량벼로 키워왔다. 천성이 농사꾼으로 부지런한 김 씨는 새로 선정해 입식한 운광벼를 자식처럼 알뜰살뜰 보살피며 고품질 양양해뜨미로 출하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논에서 소출되는 해뜨미의 양은 100여가마로 연간 논농사로만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모범적인 전업농으로 우리농촌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전국 쌀 대축제 품평회에는 운광벼 15kg과 완전미 15kg을 출품해 1개의 이삭에서 200

개의 낱알이 소출되는 다수확 품종에다 완전미의 가공기술도 좋아 차지고 윤기가 좌르르 흘러 대부분의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창휘 씨는 "그동안 전국 곡창지대의 고품질 쌀을 넘기기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에 운광벼를 통해 양양해뜨미가 좋은 평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온 보람이 크다"며 "양양해뜨미가 전국적인 고품질 브랜드화에 진입한 만큼 더욱 열심히 양양쌀 생산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강현농협 조합원인 그는 이번 품평회 출품을 앞두고 찌는 듯한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벼를 관리한데다, 강현농협의 최신식 도정공장서 무결점의 완전미로 생산해 판매하며 지역에서도 우수한 쌀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신이 직접 정성을 들여 지은 양양해뜨미가 전국의 곡창지대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의 명품 쌀 40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겨룬 품평회에서 금상을 차지하자, 지역에서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 가을철 산불방지활동 돌입

## 우리군, 12월15일까지 총력전

우리군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본청과 각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공조, 산불방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번에 5,000ℓ의 급수가 가능한 민간탱기 1대를 공동으로 임차해 공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무인카메라 7개소와 무인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다목적 진화차량 6대를 확보하고 산불특별진화대원 45명을 채용, 24시간 산불방지 활동에 투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임야를 조망할 수 있는 12개소에 산불감시탑을, 입산통제구역 등 15곳에 산불감시초소

를 운영하며 102명의 산불유급감시원을 위험지역에 배치,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활동과 산불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의용소방대(15개), 자율방범대(7개), 전우회(2개), 재난통신단(1개) 등 관내 25개 사회단체와 124개 마을 이장과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관내 집배원, 택시기사, 초·중·고교 학생 산불예방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자율적인 산불예방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군은 양양읍 감곡리 등 45개소 5,766헥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같은 기간에 관내 전 산림에는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 소지가 금지된다.

▶문의 산림농지과 산림보호담당 670-2714

# 내년도 당초예산 2,146억 편성

## 종합운동장 건립 72억 · 체육분야 인프라 확충 110억 반영

우리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해 당초예산 2,126억원보다 0.92%(19억4,800만원) 늘어난 2,146억원 규모로 편성, 지난 21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5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3억원(1.1%) 감액됐으며, 특별회계는 44억원 증가된 193억원(9%)으로 편성됐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92억원(18.28%)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353억원(16.47%), 국토 및 지역개발 250억원(11.67%), 일반행정 163억원(7.6%), 환경 161억17만원(7.51%), 수송 및 교통 112억

원(5.2%), 공공질서 및 안전 93억원(4.35%) 등의 순으로 배분했다.

조직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350억원(16.31%), 농업기술센터 8.5%(182억원), 경제도시과 173억원(8.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가 4.68%(100억원)로 가장 많았고, 6개 읍면의 예산은 모두 합쳐 0.83%(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별로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73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7억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31억원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 22억원 △양양소방서 신축사업 15억원 △동해안형 수중 해상

섬 조성사업 21억원 △녹색성장 도로기반 구축사업 39억원 △현남면 소재지 정비사업 15억원 △강현·현북면 소재지 정비사업 14억원 △동산항 해양레저사업 12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0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73억여원을 포함해 소규모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체육분야의 예산액이 올해보다 137%(110억원)로 크게 늘었으며, 제2그린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예산이 372%(58억원)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관리 분야와 도로(자전거도로 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비가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채무상환과 관련,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용료와 사업수입 등 40억원의 수입을 통해 최초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차입금(지역개발기금)원금 13억원을 상환하고,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에 따른 일반회계 채무도 13억원을 상환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양양군의 모든 채무를 상환이 가능해 내년부터 지자체 채무제로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억제, 경상예산을 5% 이상 절감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 사랑의 연탄 나눔 열기 '후끈'

## 연탄은행 · 낙산사 무산복지재단 발대식

동절기를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봉사가 시작돼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군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연탄은행(대표 윤여준)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 남대전 둔치에서 40개 봉사단체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채우고 나누는 사랑의 연탄 나눔'재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탄배달에 들어갔다.

연탄은행은 이날 1가구당 300장씩 6개 읍면 80가구에 총 2만4천장의 연탄을 배달

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위로했다.

이에 따라 연탄은행은 동절기에도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발굴되면 추가적으로 연탄을 확보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이사장 정념스님)은 지난 2일 오전 11시 양양노인복지관 광장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탄배달 봉사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념스님을 비롯해 정



상철 군수, 김일수 의장,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연탄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양양읍과 서면 장승리 등 52가구에 5,2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는 초중고생들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모은 연탄저금

통을 가져와 기부하는 저금통 모금식도 열려 의미를 더했다.

낙산사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내 저소득층 288가구에 100장씩 총 2만8,800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우리군 문화·관광해설 도내 최고 입증

## 홍창해·김기수 듀엣 '38선과 국군의 날' 발표 '감동'

### 국군복장 이색 스토리텔링 화제

지난 2011년부터 우리군의 문화관광해설사로 활약하고 있는 홍창해.김기수 씨가 강원도가 주최한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에 우리군 대표로 출전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지난 10월 24~25일 이틀간 강릉에서 열린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에 참가해 '38선과 국군의 날'을 주제로 시대의 아픈 상처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 미래지향적 희망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구수한 입담으로 전해



최고 점수를 받았다. 베테랑 해설사로 불리는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국군의 날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10월1일이 6.25전쟁 때 국군 3사단 3대가 당일 현북면 잔교리 38선을 통과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시대의 아픔을 전했다.

비록 오래 전 일이지만 사실적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듀엣 해설사들은 군부대에 요청해 당시 국군복장을 빌려 입고 나온 뒤 이야기를 시작해 발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사실감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어 전쟁 이전 철광을 실어 나르며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 역할을 하던 양양역이 포격으로 소실돼 철도가 끊어진 아픔을 생생하게 전한 뒤, 중단된 철마는 남북화해를 통해 원산, 블

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이어진다는 기분 좋은 상상력이 더해져 이날 무대는 감동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특히 홍창해.김기수 해설사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를 희망찬 미래로 잇는 스토리텔링의 마지막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로 장식하며 이날 도내에서 참석한 180명의 해설사들과 하나 되는 장을 이끌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들은 나머지 5명의 문화관광해설사들과 함께 하조대, 오색, 낙산, 38선 미니주제관 등 4개 관광거점을 순회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관광전도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오색지킴이로 잘 알려진 홍창해 씨는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활성화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2011년 김선래 씨가 최우수상을 받는데 이어 지난해 엄태식 씨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며 관광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 서면 영덕리 새농어촌 우수마을 선정

## 38로 기억되는 한별마을...경쟁력 배가 청사진

서면 영덕리(이장 김영철)가 올해 강원도의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38선 마을로 불리는 영덕리 한별마을은 일부 마을수몰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촌마을의 특색을 살려 야영장 운영과 각종 주민소득사업 추진 등으로 경쟁력을 배가시켜 이번에 우수마을로 평가받았다.

올해로 새농어촌건설운동 3년차인 영덕리 한별마을은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받은 보상금을 종자돈으로 주민들 모두 단합해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면서 잘사는 마을을 실현해가고 있다.

한별마을은 38가구 109명의 주민들이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3개 조직을 구성해 마을발전을 주도한 가운데 마을영농조합법인과 한



우영농조합법인 등 2개의 법인체를 꾸려 탄탄한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38로 기억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38선 테마와 생태체험, 녹색에너지 등 마을자원을 개념화해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을 짜고 관광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한별마을은 이에 따라 앞으로 38되넘이길을 비롯해 38에코센터, 참 송이를 찾아서, 보살천렵체험, 야생동물 필름발자국 만들기 등 신개념의 농촌관광 활성화 신규 사업을 추진,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336

# 양양농협 정부양곡보관창고 준공

880톤 저장 가능...정부수매 불편 해소



양양농협(조합장 고용달)이 지난 20일 양양읍 월리 양양농협 DSC에서 정부양곡보관창고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상철 군수, 고용달 양양농협 조합장, 손재형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장, 조합원 등이 참석해 정부양곡보관창고 신축을 축하했다.

양양농협의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자부담 1억6천만원, 군비 1억6천만원, 농협중앙회 8천만원 등 4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산물벼 저온저장시설인 DSC 인근 200평에 조성됐다.

정부양곡 88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관내 최대규의 양곡보관창고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양양읍 포월리의 일반창고를 빌

려 정부수매를 하던 불편이 크게 해소되게 됐다.

이와 관련, 양양관내 각 농협들은 대한통운이 2년 전부터 정부양곡창고 위탁운영이 중단되면서 규모화된 정부수매 장소를 찾지 못해 매년 정부수매에 애를 먹어 왔었다.

## 상평초교 플라잉디스크골프 전국 우승

남자 초등부 출전...스포츠클럽 활동 활발

친환경 생태·환경학교로 자리매김한 상평초등학교(교장 심경섭)가 올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플라잉디스크 골프 대회'에서 남초부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상평초교는 지난 1일~3일까지 경북 포항시 양덕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초등부 단체전에 출전해 선수들이 환상의 호흡을

맞춰가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전국에서 초등부 2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 상평초교는 이번 우승으로 지난해 1타차로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시원스레 날려보냈다.

상평초교는 전교생 60여명의 산골 소규모학교로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



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플라잉디스크 골프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우수스포츠클럽으로 지정돼 다양한 뉴-스포츠 장비들을 갖춘 데다, 플라잉 디스크 종목은 배우기 쉽고 재미도 있어 인기종목으로 불리고 있다.

전교생들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플라잉디스크 종목에 재미를 붙여 쉬는 시간이면 학교 운동장에 나가 플라잉디스크 활동을 하고 있다. 디스크플라잉 골프는 골프공 대신 플라잉디스크를 골홀(디스캐처)에 넣는 게임이다.

심경섭 교장은 "이런 큰 대회에서 입상함으로써 작은 시골학교 학생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플라잉디스크를 강화해 인성교육 효과를 높여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우리군새마을지회 새 보금자리 마련

회관 신축 준공식...독서방·부녀회 체험관 등 갖춰



우리군새마을지회(회장 김광래)는 지난 4일 새마을회관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우리군새마을회관 준공식에는 정상철 군수와 김광래 지회장, 김양수 도의원, 김택철 부의장, 최선남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 단장을 축하했다.

양양읍 연창리에 위치한 새마을회관은 군비 2억5천만원, 도비 2억5천만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돼 지난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준공됐으며, 지상 2층 84평 규모로 1층에는 지회 사무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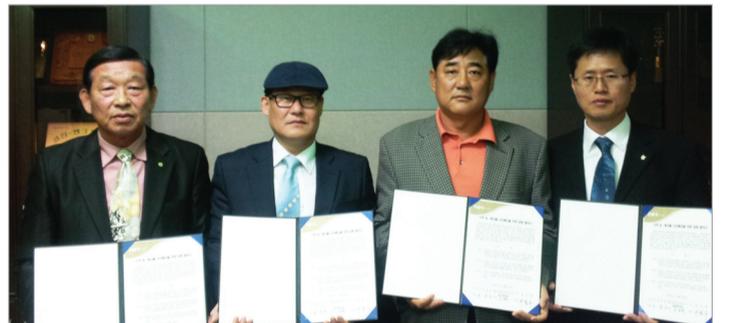
산하 3개 단체 사무실이, 2층에는 문고 독서방과 부녀회 체험관이 들어섰다.

김광래 지회장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새마을지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돼 회원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한다"며 "지역발전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군새마을지회는 지난 8일 양양실내체육관에서 6개 읍면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회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화합을 다졌다.

## 우리고장 먹거리 소비촉진 협약

농협양양군지부·서광농협·오색한과정다운 마을



농협 양양군지부와 서광농협, 오색한과, 정다운 마을이 지난달 25일 우리고장 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식사량·농사랑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손재형 농협 양양군지부장

박철수 서광농협조합장, 원용문 오색한과 대표, 홍윤표 정다운 마을 원장은 이날 서광농협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의 지역소비 촉진을 증진하기 위해 협약식을 가졌다.

## 수확철 어려운 농가일손돕기

농가주부모임회·농협 양양군지부



농가주부모임 양양군연합회(회장 최경자)와 농협 양양군지부가 가을 수확철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어려운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서 미담이 되고 있다.

농가주부모임회 회원들과 농협 양양군지부 직원들은 지난 11월 31일 손양면 하양힐리 2농가를 찾아 고추대 작업, 폐비닐 수거 등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 제33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자충 양양군지회 지난달 30일 낙산사거리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지회장 정준화)가 지난달 30일 낙산사거리에서 제33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양양군지회는 이날 오전 11시 강현면 낙산해변 입구 사거리에서 정준화 지회장과 정상철 양양

군수,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정준화 지회장은 추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산화한 희생자들이 편히 쉬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인재육성 100년을 설계한다

####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11월 장학금 기탁현황

번호	기탁일	성명	기탁금(원)
1	9. 2	손우회(손양면기관단체모임)	2,000,000
2	9. 3	이건형	1,000,000
3	9. 4	청송회(서면기관단체모임)	2,000,000
4			
5			
6			
7			



#### 강지수 현북우체국장 장학금 기탁

양양군수에게 인재육성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현북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는 강지수 국장이 지난 18일 오전 10시 양양군을 찾아 정상철

## 우리군 사상 첫 강원역전마라톤 종합우승

지난 12~15일 나흘간 도내 14개 시·군서 레이스

#### 강혜림 우수선수상·장민용 감독 최우수 지도자상

제22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에서 우리군 대표팀이 사상 첫 2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토했다.

1992년 황영조 바로셀로나올림픽 마라톤 제패 기념으로 지난 12~15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우리군 대표팀은 강혜림을 비롯해 초·중·고·일반부에 14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도내 최정상에 우뚝 섰다.

특히 우리군 대표 강혜림은 4개 구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양양군이 2부에서 종합우승을 거머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우리군 대표팀은 이번 강원역전마라톤대회를 앞두고 구간별로 출전 선수들의 체력을 잘 안배하며 효율적인 레이스를 펼쳐 사상 첫 정상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또 열악한 육상훈련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선수들의 재능을 파악해 맞춤형을 연습에 매진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에서 총 4개 구간에서 1위를 차



지한 강혜림은 우수선수상을 수상했으며, 양양군체육회 육상지도자인 장민용 감독이 탁월한 지도능력을 인정받아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이번 강원역전마라톤대회는 지난 12일 최북단 고성을 출발해 속초~양양~강릉~영월~정선~태백~원주~춘천 등 도내 14개 시군을 총 455.5km를 달리는 대장정 이어달리기로 펼쳐졌다.

대표팀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육상 꿈나무 발굴을 위한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양양사이클경기장 등 최신식 트랙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기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 제3회 실버종합예술제 다채롭게 펼쳐져

'은빛청춘, 꿈의 날개를 펴다' 450여명 관람



우리군노인복지관의 제3회 실버종합예술제가 지난 6일 양양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은빛청춘, 꿈의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종합예술제는 한국무용, 실버합창단, 댄스스포츠 등 11개 팀 120여명의 수

강생들이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식전행사로는 축하공연팀이 출연해 흥을 북돋았다.

노인복지관은 이날 예술제를 관람한 노인 450명에게 중식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공연 후에는 경품추첨 시간도 가졌다.

## 농·특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수도권에 '양양명품관' 설치 연중 마케팅 실시

우리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대외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연중 판매를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에 나선다.

군은 올해 자매결연 수도권 지자체인 송파구를 비롯해 경기도 군포시 및 양재동 하나로마트, 서울광장에서 총 12회에 걸친 직거래 장터와 판매행사, 박람회 등을 열어 7천만원의 순수 매출을 올렸다.

또 온라인 쇼핑 몰(양양몰)도 오픈 첫해인 2011년 방문객이 33만여명에서 올해는 두 배인 60여만명으로 늘어난데다, SNS와 출향군민들을 통한 홍보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은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을 10개 품목에 15만개로 늘리고 통합디자인 개발 브랜드화와 산지유통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수도권을 대상으로 상설 전시·판매·홍보할 수 있는 '양양 명품관'을 설치해 연중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산지소 운동'을 활성화시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유기농산물 소비문화 정착을 토대로 학교급식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은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식재료 실태조사에서부터 재료 선정, 가격협의 및 공급에 이르기까지 유통업무를 총괄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및 지역농협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 연간 수급계획을 통한 식재료 생산마을을 조성해 계약재배를 유도, 안정적인 판매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의 유통센터 개설과 연계한 상설 직거래 장터를 더욱 활성화해 기획 특별판매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농수축협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직거래를 늘리고, 농·특산물 가공 창업학교 개설 등 선진화의 토대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순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제는 생산보다 마케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유통구조 선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담당 670-2703

## 가을걷이 끝내고 화합의 장 마련

제20회 우리군 농업인의 날 행사 성료



제20회 우리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가을걷이를 끝낸 농업인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양양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5개 농업인 단체가 주관한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깨끗한 농촌, 잘사는 농촌, 희망과 자립의 농촌을 기치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난 1년간 팍 흥린 노고를 위로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부대행사로 60~70년대 농촌풍경을 담은 추억의 사진전과 생활개선회원들이 그동안 익힌 수화로 공연과 우수품종의 쌀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농업인과 분야별 우수농업인 등 23명의 농업인에 대한 군수, 의장, 국회의원의 표

창이 수여됐으며, 농업인 단체가 시상하는 농업발전에 대한 유공 감사패는 박철수 서광농협장이 선정됐다.

농촌지도자회에서는 탁상기 씨, 생활개선회 임동숙 씨, 농업경영인회 박병인 씨, 여성농업인회 김영미 씨, 4-H회 권인자 씨가 단체별 우수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 인기석 담담이 농업농촌 지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김순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알팍한 상흔 탓에 흔히 빼빼로 데이로 알려진 11월11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다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토(土)를 숫자로 풀어서 제정한 농업인의 날로, 그간의 위로와 사기를 높이고 단체간 결속을 통한 농업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양양사이클경기장 올해 6개 대회 유치

5천5백여명 방문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노력



우리군이 올해 6개 사이클대회를 유치하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KBS배 전국 사이클대회를 비롯해 실업대회, 도민체전 등 올해만 6개 사이클대회를 유치해, 1,500명의 선수단과 4,000여명의 가족 등 5,500여명이 사이클경기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사이클경기장을 찾은 선수단과 가족들은 관내 주요 숙박시설에서 머물며 식당을 이용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는 경기장 사용료로 780여만원의 적은 수입을 올렸으나, 향후 자전거 테마공원 및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 일반인들의 이용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사이클경기장의 사용료보다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습, 훈련 등 장기 이용자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50%까지 대폭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최신식 시설로 조성된 양양사이클경기장이 사이클 경기력 향상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개 대회기간 중 단거리와 독주경기 등에서 3개의

한국신기록이 작성돼 국내에서도 최고의 피스타 시설임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1억7,500만 원을 들여 기록 계측, 사진판독 및 신호변환기 등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전문업체와 경주로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해 트랙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등 최고시설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양양사이클경기장은 지난 2008년 국·도비 125억원과 군비 134억원 등 총 259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6월 완공됐으며, 1,350석의 관람석과 333.3m의 트랙(피스타) 및 주변에는 축구장과 육상트랙(8레인)을 갖춘 보조경기장을 갖추고 있다.

양양국제공항 인근의 송림 속에 위치한 도내 유일의 양양사이클경기장이 올해 첫 본격 운영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효자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운영경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내년에도 전국 대회 유치는 물론 겨울철 전진훈련장으로 홍보해 연중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사이클경기장담당 670-2883

##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 마-42. 화투노래

정월술에 속삭인 마음  
이월 매조에 맺어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사리 허둥지둥  
오월 난초에 놀던 나비는  
유월 옥목단에 날아든다

칠월 흥돼지 홀로놀구  
팔월 팔공산에 달마중가자  
구월 국진 피었던 꽃이  
시월 단풍에 낙화되고  
오동동추야 달밝은 밤에  
비오단 말씀이 웬말이요

어얼씨구 좋다 저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어절절 씨구 지화자 좋구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48장으로 끝수를 다루는 놀이용 딱지.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대체로 포르투갈의 카르다(cartal)놀이 딱지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제국이거나 일제강점기에 전래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하겠습니.

그리고 「고스톱 또는 고도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듯 하다 하겠습니.

이 노름놀이는 보통 농한기인 겨울철 아니면

설, 추석명절이거나 상가집에서 친목도모 차원에서 성행했습니다만 때로는 도박성의 발동으로 지나친 돈내기, 논밭문서 잡히기까지로 패가망신을 자초하던 모습 결코 없지 않았습니. 이를 건전 오락생활 측면에서 성숙된 또 다른 환경조성과 적응의 필요성 느껴 보는 일 어떤 바람직한 의미 부여로 분명되리라 믿어 봅니다.

## 제27회 양양의용소방기술경연 열려



우리군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박성화)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양양실내체육관에서 제27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상철 군수, 김일수 의장, 김시균 속초소방서장 및 각급기관단체장과 읍면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해 선진 소방기술시연을 참관했다.

## 관내 4개 봉사단체 체육대회 성료

양양로타리클럽 주관 이웃돕기 성금 전달



관내 4개 봉사단체 체육대회가 지난 3일 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려 단체간 화합을 다졌다.

양양로타리클럽(회장 정준화)이 주관한 이날 체육대회에는 양양라이온스클럽과 현산로타리클럽, 양양JCI 등 4개 봉사단체회원 300명이 참가해 배구와 족구 등을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한 봉사단체들은 매년 체육대회를 통해 단체간 화합을 다지며 지역사회봉사에 연대하고 있어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이날 정준화 양양로타리클럽회장은 정상철 양양군수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봉사단체들이 지평을 넓혀 다양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로타리클럽은 지난 7일 육군 8군단 6729부대(부대장 김성수)를 방문해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문품으로 100만원 상당의 돼지(2마리)를 전달했다.

## 강현푸른회 다문화가정 집수리봉사

강현푸른회(회장 김갑수)가 지난 3일 강현면 장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리 마리아 아레레메이 씨 집을 찾아

3백만원을 들여 도배와 장판교체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이 집수리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 현북면 질골 연화두부 브랜드 자리매김

### 지난해 매출 5천만원 기록...국산 콩에 해수 사용

현북면 도리 질골에서 생산되는 연화두부가 100% 국내산 콩에 기사문 앞바다의 청정 바닷물을 천연 응고제로 사용하면서 웰빙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0년 창의적 손맛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연화두부는 농업인 소규모 가공현장 기술지도와 전통음식 연구 및 음식학교 전문과정 등 100여 회 이상의 창업관련 교육을 통해 지난 10월 기준 5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토속음식의 경쟁력을 한껏 높이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두부는 80% 이상 관내 농협과 축협 하나로마트에 납품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가운데 지난 2011년 2천5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매년 60% 이상의 판매 신장률을 보여 지역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숙박시설인 솔비치 호텔음식점 및 식당에도 입점함으로써 관광객들에 대한 청정지역 홍보 효과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화두부의 인기는 농협을 통해 계약 재배된 질 좋은 국산 콩만을 고집하며 화학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다, 1급수 해수를 이용하는 까닭에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고, 영양성분 검사결과 타 두부보다도 월등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화두부는 도시 소비자들의 체험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양양장날을 통해 15회에 걸친 시식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도 10여회 이상 참여함으로써

한번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반복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연화두부의 6차 산업화를 위해 지난달 21일 전문가 3명과 함께 생산가공설비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상품개발 전략과 유통, 판매방안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과 소득증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연화 대표는 청정 해수두부의 성공에 이어 앞으로 검은콩두부, 나물두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추가 개발하고 소포장 제품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순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양양8미(味)를 중심으로 완전식품인 연화두부처럼 손맛사업들을 발굴 육성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70-2338

# 강현면-방배2동 자매결연 체결

### 상호교류 약속...김천수 재경양양군민회장 주선



강현면(면장 최근상)과 서울 서초구 방배2동(동장 최충환)이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강현면과 서초구 방배2동은 지난 10월24일 강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양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상호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현재 양양군민회장을 맡고 있는 김천수 주민자치위원장

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방배2동 주민 25명이 참석해 조인식 후 낙산사, 진전사, 강현면 강선리 절임배추 공장, 양양 5일장 등을 견학하며 교류협력의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

최근상 강현면장은 "방배2동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청정 양양군의 이미지가 널리 홍보되도록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강현면사무소 총무담당 670-2660

# 우리군 상수도 체납액 특별징수

### 이달 29일까지...1억2천여만원 체납

우리군은 상경기 침체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선다.

군은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 및 고질적인 상수도 요금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 오는 29일까지를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법 제68조에 근거해 1개반 3개조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대상은 3개월 이상 및 30만원 이상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로 특별 징수기간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단수 조

치 및 압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체납액은 1,057건에 1억2,491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단수전 자진납부 안내 및 계도장을 발부하고 가정집 단수 시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 박탈 피해 우려가 있어 현장 출장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운영담당 670-2567

# "어릴 적 화가의 꿈 실현"

### 양양수채화 동호회 창립전 가져 초대 김두원 회장...회원 10명 작품활동

양양수채화 동호회가 지난 8일~10일까지 문화복지관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초대 회장에 추대된 김두원(사진) 회장은 "어릴 적 화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회원들이 뒤늦게나마 수채화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창립 소감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채화반 수강생을 중심으로 10명의 회원들과 함께 양양수채화 동호회를 구성, 그림으로 행복한 삶을 전할 계획이다.

회원들 대부분이 50~60대로 수년 전부터 배워온 수채화로 생활의 활력소를 덧 채우며

열정을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을 비롯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재를 하얀 캔버스에 담아내는 수채화에 매료돼 4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한 뒤 동호회까지 창립하게 됐다.

특히 향토예술의 저변이 다소 미약한 양양지역에 수채화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현대문예와의 가교역할은 물론 문화예술 부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양수채화 동호회 창립을 주도한 김두원 회장은 "이번 동호회 창립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작품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역과 주민들에



김두원 초대 회장

게 보다 사실적이며 풍부한 감성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08년 양양부군수로 34년간의 공직을 마감하고 명예 퇴직한 김 회장은 주민의 공복이라는 신념을 갖고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면밀하게 펼쳐와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특히 온화한 성품에다 주도면밀한 추진력을 두루 겸비한 덕장으로 불리며 크고 작은 지역현안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내면서 출중한 행정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퇴임 후 그동안 못 다한 취미 생활과 여가를 즐겨온 그는 누구나 어릴 적 한번쯤은 꿈꿔왔을 화가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해 어엿한 동호회까지 창립하게 됐다.

양양수채화 동호회는 지난 8일~10일까지 회원들이 공들여 완성한 작품을 선보이며 창립전을 가져 호평을 받았다.



양양수채화 동호회가 마련한 창립전.

# 우리군 이동교육교실 운영

우리군이 여성회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주민들을 위해 이동교육교실을 운영한다.

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으로 상·하반기 교육교실 이용률이 적고 농한기 이용률이 많은 지역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서면·손양면·현남면을 대상으로 이동교육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1일부터 26일까지 문화적 욕구는 있으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수강이 어려운 서면, 손양면, 현남

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지난 4일부터 이동교육교실 운영에 나서고 있다.

서면은 수상리 마을회관에서 오는 2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회 저녁 6시부터 8시에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손양면은 상왕도리 마을회관에서 댄스스포츠 교실을 29일까지 주 5회 운영한다. 또 현남면 원포리 마을회관에서도 10여명을 대상으로 주 3회 노래교실을 운영한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670-2370

## 내년도 공공비축미 오륜·오광벼 선정

### 우리군, 오대벼 단점 보완...대형포장 매입 진행

우리군은 농협관계자, 농업인단체장, 농업인 대표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오륜과 오광벼를 최종 선정했다.

오륜벼는 오대벼의 대체품종으로 개발됐으며, 오대벼에 비해 병충해와 바람에 잘 견디며 밥맛과 도정수율이 뛰어나고 단보당 생산량이 최소 25kg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에 강하고 농사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대벼는 개발한지 30년이 넘어 기상 재앙 시 피해가 가장 우려되며 기후 변화에 취약하고 외관상 품질이 저조해 보이는 단점이 있어 제외됐다.

올해 우리군의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은 오대와 윤광으로 1,176.7톤(2만 9,417가마/조곡 40kg)을 매입할 계획이며, 지난달 20일까지 1만6,323가마를 매입했다.

특히 건조벼는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 쌀값(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특등품 5만6,820원이며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제비용 820원/40kg를 차감한 특등품 5만 6,000원에 매입하고 있다.

올해 대형포장(톤백/800kg) 매입은 지난 6일 강현면(상복리 집하장, 강현 DSC), 7일 강현면(102여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오는 14일 현남면(죽도해변), 15일 현남면(원포리 잡곡판매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담당 670-2366

##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 우리군, 추첨 통해 50명 선정

우리군이 지방세의 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군은 주요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세납하는 주민들이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성실세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월30일 현재 관내에 주소가 등록돼 있거나 각종 공과금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자동차 연납자 및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지방세정시스템)을 통해 50명을 선정, 1인당 재래시장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2013년도 총 4만5,727명의 총 납세자 중 관내주소를 두고 있고 납기내 납부자, 체납 없는 납세자, 자동차세 연납자 등 2만1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전산추첨을 시행, 50명을 선정할 뒤 양양군 누리집에 결과를 공지하고 상품권은 개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박학원 세무회계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체납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월납, 연부담 등을 유도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670-2150

## 강현농협 영동권 최초 육묘은행 조성

### 내년부터 30만평에 공급 가능...전업농 영농편의 기대

강현농협(조합장 전용우)이 영동권 최초로 못자리 육묘은행을 개설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예정이어서 농업인들의 편의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강현농협은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자해 강현면 장산리에 소규모 육묘은행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못자리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현농협의 육묘은행에서는 3회에 걸쳐 3만장의 모판 생산이 가능해져 30만평의 논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육묘은행이 본격 가동되면 그동안 자가 생산이나 모판을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는데다, 공급단가도 비교적 저렴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 전업농들의 편의가 기대되고 있다.

강현농협은 벼농사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특성에 따라 이에 알맞은 규모의 육묘은행을 조성,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사인력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벼농사 시스템을 정착시켜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전용우 조합장은 벼농사의 선진화를 위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이번 육묘은행 조성사업을 바탕으로 맞춤형 벼농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현농협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육묘은행 운영에 나섬에 따라 기존의 소규모 도정공장(RPC) 활성화와 더불어 벼 생산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용우 조합장은 "이번 육묘은행 조성으로 벼농사의 규모화가 가능해져 전업농들의 편의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편리한 영농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교육 실시

### 농업기술센터 12월3~11일까지 5회 진행

우리군은 농산물의 가공기술 배양 및 창업 마인드 함양을 통해 가공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식품제조가공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양양전통음식학교(단기과정)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농업인의 가공 및 저장시설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창업에 필요한 절차, 사업장 설계, 경영 전략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제조가공 창업 교육은 오는 12월3일부터 11일까지 총 5회 20시간(1회 4시간)을 농업기술센터 다목적실 및 생활과학관에서 이뤄지며 2013년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문가적 능력 배양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이번 교육은 한국식품정보원 중부권설립 이소정 본부장 등 4명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농업인 창업에서 성장까지, 식품산업의 이해를 통한 경영전략,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농산물 가공사업장 설계, 농산물 가공 및 저장의 이해, 농산물 가공 이론과 실제, 주요제조기술 실습 등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운영된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담당 670-2338

## 양양우체국 '가래떡 데이' 운영

### 농업인 위로...직원들 무사고 2년 자축



양양우체국(국장 임근순)이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수확의 기쁨과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가래떡 데이'를 운영했다. 우체국은 대부분 이날을 '빼빼로 데이'로 이용하고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홍보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가래떡 데이로 정해 올해 지은 지역 쌀로 가래떡을 만들어 소비촉진에도 동참했다. 한편 양양우체국은 무고 2년이 되는 이날, 집배원 등을 직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 현남면 경로당 준공



우리군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현남면 보건소 앞 대한노인회 현남면 분회 경로당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

에는 정상철 군수, 김우섭의원, 최홍규의원, 이진형 노인회장 및 읍면 노인회장단, 마을어르신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 겨울철, 전기안전관리요령

-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열기기는 사용전에 파손 및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한다.
-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전열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사용중에 접혀 지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한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개의 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전열기기 사용중에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않는다.
- 누전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시험용버튼(적색 또는 녹색)을 눌러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전기안전에 관한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번호 관계없이 1588-7500번)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는 보수와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므로써,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 사업소득 등 : 2012년도 귀속분 → 2013.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 연 금 소 득 : 2013년도 지급 분 → 공적 연금기관에서 지급 확정된 연금소득 단,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2012년도 지급 확정분  
· 재 산 : 2013. 6. 1. 소유 기준, 2013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 보험료 조정신청

-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장

## 동물등록제, 2014년1월1일 모든 시군구 시행! 반려동물에게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 동물등록제란?

-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
-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 방지
- ☞ 유실·유기동물 보호비용 절감,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 등록대상동물

-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장소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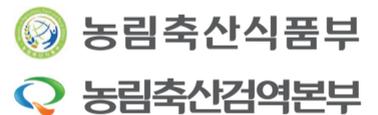
- ☞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 ☞ ①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②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③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가지 방법 선택

### 미등록시 안내

- ☞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 ~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201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예정

### 문의

- ☞ 관할 시·군·구 및 1577-0954
- ☞ www.animal.go.kr



##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보험급여 적용



### 배경 및 경과

- 초음파검사는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으나, '13년 보장성 확대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 급여화 추진
- 건강보험정책심의회('13.8.27)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적용 방안을 최종 심의 의결

### 초음파 검사 급여 내용

- 적용대상 4대 중증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관련 본인부담 산정특례자... 적용시점은 등록부터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 검사비용 검사 부위에 따라 4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사 난이도 및 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 검사비용이 다를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은 등록질환에 따라 검사 비용의 5~10% 적용
- 급여범위 질환별 인정 횟수 및 기준 설정, 인정횟수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 세부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예정

### 환자부담 완화사례

-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에 걸려, 암절제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구분	현행	급여적용 시
본인부담금	약 16만원(비급여)	약 3만 1천원
세부내용	-	○ 본인부담률 : 암환자 본인부담률 5% 적용 - 간 초음파 비용: 70,932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 선택진료료 포함(비급여)

### 시행시기 : 2013년 10월 1일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1577-1000(www.nhis.or.kr)

## 우리군 관리시설 이용객 크게 늘어

문화복지회관·송이밸리 2배 증가...콘텐츠 확충 계획

우리군의 주요 관리시설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수영장, 공연장, 전시실, 동아리방 등을 갖춘 문화복지회관이 지난 13일 기준 11만4,315명이 이용,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총 6,369만원의 수입금을 올렸다.

시설별 이용객은 수영장이 2만9,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장 2만1,587명, 체

력단련실 1만4,904명, 일출웨딩홀 1만801명 순이었으며, 공연장과 컴퓨터정보교실, 동아리방, 일출웨딩홀 등이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다.

체험탐방시설인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문화관의 경우, 지난 14일 현재 1,013실을 이용해 지난해보다 60%이상 증가, 7,886만원의 수입금을 기록했으며, 송이관의 관람객도 지난해 3,226명보

다 2배가량 증가한 6천명으로 집계됐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43.67헥타의 산림 속에 숙박시설인 산림문화휴양관과 송이관이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목재문화체험관과 백두대간생태체험장, 짚트랙 등 체험시설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더욱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산선사박물관은 지난 14일 기준 지난해와 비슷한 6만7,123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기모형, 자석세트 등 방문기념품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한 1천여만으로 집계

됐다.

이에 따라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시설 외에 탐방로와 삼림욕장, 야생수목원 등을 조성해 볼거리를 더욱 늘리고, 숲해설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며, 오산선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야외시설을 강화하고, 내년 3월중 운영조례를 개정해 도내의 박물관과 연계한 할인협약을 시행하는 등 주요 관리시설의 실질적인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담당 670-2795